



5강 I 게임직군 진로지도1

강사 : 최삼하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게임교육과 교수

/ 강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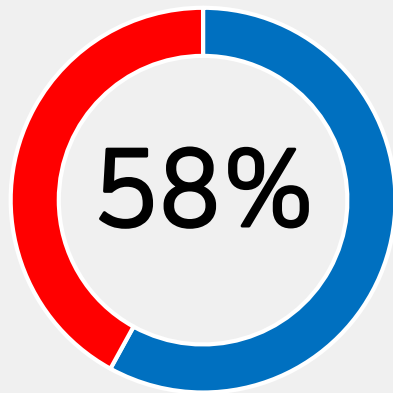
게임에 대한 인식과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게임 직군과 진로에 대해 알아보시다

게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생각

게임중독, 게임 과몰입, 폭력성 등

게임 과몰입에 대한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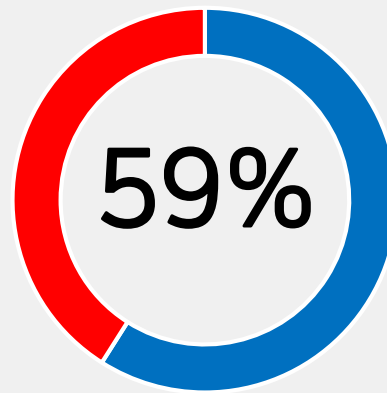
1년 후 조사



정상
집단으로
회귀

■ 정상범위 ■ 과몰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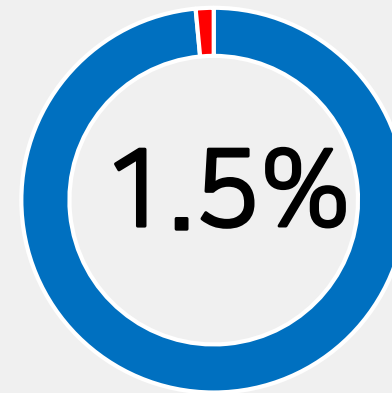
2년 후 조사



정상
집단으로
회귀

■ 정상범위 ■ 과몰입군

5년 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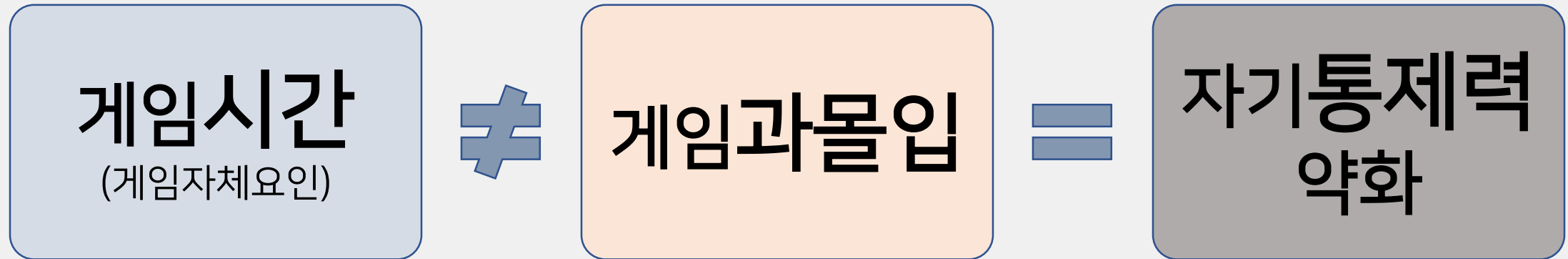


과몰입군
유지집단

■ 정상범위 ■ 과몰입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천여명의 과몰입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게임 과몰입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의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값을 도출

과몰입 지수는 게임 시간(≠ 게임 자체적인 요인)과 상관없음

오히려 과몰입 지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은 '자기 통제력 약화'도 확인됨
(자기통제력: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순간적인 욕구를 참는 능력)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은 게임이 아니라 '스트레스'

게임은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병이 아니다!

한국 50대 부자 10년의 변화: 게임 업계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

한국 50대 부자 10년의 변화

순위	2006년	자산총액(원)	순위	2016년	자산총액(원)
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조7309억	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4조4418억
2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2조7277억	2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9조6279억
3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1조7940억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7조1063억
4	신동빈 롯데 부회장	1조3955억	4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대표	5조6162억
5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	1조3126억	5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5조5016억
6	이명희 신세계 회장	1조3097억	6	김정주 NXC 대표	4조6993억
7	서경배 태평양 사장	9412억	7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4조4701억
8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9252억	8	최태원 SK 회장	3조8970억
9	이재현 CJ 회장	8081억	9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3조2093억
10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7664억	10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2조8654억
11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7546억	11	이재현 CJ 회장	2조7508억
12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7462억	12	이중근 부영 회장	2조6935억
13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7160억	13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조6362억
14	박문덕 하이트맥주 회장	6910억	14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2조5215억
15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6888억	15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2조4069억
16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6880억	16	김범수 다음카카오이사회 의장	2조2923억
17	신격호 롯데 회장	6752억	17	구본무 LG그룹 회장	2조1777억
18	최태원 SK 회장	5856억	1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1204억
19	구본무 LG 회장	5771억	19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2조631억
2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5633억	2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조9485억
21	정몽준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5616억	21	허영인 SPC그룹 회장	1조8338억
22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5510억	22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1조7765억
23	최진민 귀뚜라미 보일러 명예회장	5403억	23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1조7192억
24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4778억	2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1조6619억
25	허창수 GS 회장	4678억	25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1조6046억
26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	4615억	26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1조5473억
27	구본준 LG필립스LCD 부회장	4453억	27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1조4327억
28	문규영 아주산업 부회장	4162억	28	주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1조3754억
29	정몽진 KCC 회장	4113억	29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1조3181억
30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4102억	30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1조2837억
31	기남규 하우트자금융지주 사장	3923억	31	시도균 하양정민 회장	1조2607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대표 (4위)

김정주 NXC 대표 (6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29위)

실제 게임 개발사 매출



넷마블사의 리니지2 레볼루션

첫날 79억, 오픈 14일 1,000억, 오픈 1달 2,060억

최근 인기 있는 게임의 사례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졸업생 7명 개발
일 매출 10억

국내 대표 게임사의 개발환경 및 위상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과 사내복지

국내 대표 게임사의 개발환경 및 위상

일 자	회 사 명	조 치
2월1일	넥슨	연봉 800만원 일괄인상, 개발직군 초봉 5,000만원
2월10일	넷마블	연봉 800만원 일괄인상, 개발직군 초봉 5,000만원
2월19일	컴투스, 게임빌	연봉 800만원 일괄인상, 초봉 업계 최고수준
2월25일	크래프톤	개발직군 연봉 2,000만원 인상, 초봉 6,000만원
2월26일	조이시티	임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3월3일	베스파	임직원 연봉 1,200만원 일괄 인상
3월5일	스마일게이트	임직원 연봉 800만원 일괄 인상

최근 게임업계의 개발자 연봉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수준을 상회하는 초봉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과열양상을 보이며 기업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사의 인력부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나 그만큼 게임개발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증한다.

경향신문 경제

“초봉 6000만원”...IT업계, ‘귀하신 개발자님’ 모시기 경쟁

“초봉 6000만원”...IT업계, ‘귀하신 개발자님’ 모시기 경쟁

노정연 기자 입력 : 2021.02.26 21:00 | 수정 : 2021.02.26 21:01



‘네·카·라·쿠·배’에 인력 뿔길라
중견업체까지 연봉 인상 바람
대형회사에 쏠림 ‘양극화’ 우려

2021년 주요 게임·IT기업 연봉 인상 현황

업체	내용
넥슨·넷마블	전 직원 800만원 인상, 초봉 5000만원(개발직)·4500만원(비개발직)
컴투스·게임빌	전 직원 800만원 이상 인상(평균), 성과·역량·직무별 차등 지급
크래프톤	2000만원(개발직)·1500만원(비개발직) 인상, 초봉 6000만원(개발직)·5000만원(비개발직)
직방	2000만원(개발직)·1000만원(비개발직) 인상, 개발직 초봉 6000만원·경력 이직 보너스 1억원(최대)

특히 개발직군의 인력 쟁탈전은 불이 붙은 양상이다. 넥슨과 넷마블을 시작으로 컴투스, 크래프톤 등 게임업체를 비롯해 중견 IT업체들까지 줄줄이 연봉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다. ‘파격’ 수준의 연봉 인상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는 업계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한편 대형 회사로만 인력이 몰리는 양극화 우려를 낳고 있다.

